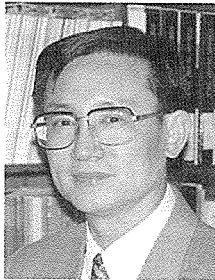




치과근관치료 세계학술회의

● 일시 : 1998년 3월28일~4월3일 ● 장소 :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난 3월 이스라엘에서 열린 국제 치과근관치료학회의 제4차 세계학술회의는 35개국에서 8백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세계학술회의에 한국대표로는 처음 참가해 첫날 토론회에서 강연을 한 경북대 치과보존학 김성교교수의 참관기를 실는다.



金省教

(경북대 치대 치과보존학과 부교수)

치과근관치료학(endodontics)이라고 하는 분야는 자연과학을 하는 이들에게도 다소 생소하게 들릴 지 모른다. 치의학 영역 중의 한 특수 분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신경치료(root canal treatment)'라고 하면 비슷하게 짐작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치아 내부에 존재하는 혈관과 신경 등으로 구성된 '치수(dental pulp)'라고 하는 조직과 치근단 주위조직

(periradicular tissue)의 형태학, 생리학 및 병리학과 연관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들 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원인,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해 다룬다.

국제치과근관치료학회 가입

근관치료학은, 고대의 자료를 제외하고, 17세기경부터 미약하나마 문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 다소의 학문적, 임상적 발전이 있었으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과학적인 이론의 부족으로 인해 암흑기를 맞는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부터 이론의 과학적 재정립과 임상 기기 및 약제들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과학의 시대를 맞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1943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근관치료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Endo-

dontists)가 결성되었고 이 학회가 근관치료학 분야를 선도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제적인 근관치료학 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5대양 6대주의 각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과근관치료학에 대한 최근 연구내용을 서로 발표하고 근관치료의 임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여 지구상의 각 나라가 함께 치과근관치료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제치과근관치료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Endodontic Associations, 약칭 I.F.E.A.)가 결성되었다. 한국에서는 근관치료학이 치과보존학 내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고, 수년 전에 가칭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를 조직한 이후 최근에 한국이 국제치과근관치료학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적 참여차원이 아닌 회원국으로서의 대표 연자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치과근관치료학회 제1차 근관치료학 세계학술회의는 1990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세계학술회의는 1992년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제3차 세계학술회의는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제4차 세계학술회의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에서 개최되었다.

아침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예루살렘 홀리데이인 크라운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가하였다. 여느 학회와 마찬가지로 리셉션은 각국의 교수나 연구자들을 부담없이 만나는 유익한 모임이었다. 그 중에는 학회 때마다 자주 만나는 많은 미국인 교수들, 유럽 교수들이

있었는데 내가 좌장을 맡게 될 세션에서 발표할 연자들 중 어떤 이들은 먼저 자기 소개를 하기도 하였다.

많은 이들이 미리 프로그램을 보고 내용을 훤히 파악하고 있는 듯 하였다. 리셉션이 열리기 전에 이미 회의전 유료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최근에 근관치료학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외과적 근관치료학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튿날 '치과 근관치료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Do & Don't Do in Endodontics)'라는 주제로 본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35개국서 8백여명 참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학자 및 임상가에게 열려 있는 본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의 국가대표 연자들이 특별 강연을 하였고, 6개국 24명의 지정연자가 초청 강연을 하였으며, 패널 토의, 병렬 토의, 임상중례발표, 근관치료학 교육회의, 계속교육 강좌, 자유 연제 강의, 구연 그리고 포스터 발표 등에 비지정 일반 발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발표자는 1백70여명 정도 되고 단순 참가자를 합하면 35여개국에서 8백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였다. 개최지에 대한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회의에 비해 발표된 논문 및 참가자의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내용상 매우 유익하고 잘 조직된 회의였다.

첫날 오후 45분간 강의도

첫째날 오후에는 미세근관치료학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이탈리아의 임상가에 의해 처음으로 근관치료

영역에 도입되고 미국의 교수들에 의해 체계화되고 있는 이 분야는 또한 나의 주된 관심사였고 나의 45분 강의도 이 세션에 있었다. 수년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배운 미세근관치료학을 한국에 옮겨와 임상 및 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나에게는 매우 흥미진진한 세션이었다. 이미 많은 대학에서 미세근관치료학을 임상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시설 보충의 측면에서 한국 내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많은 발표자들은 발표 내용 뿐 아니라 강의 기자재의 효과 및 적합성에도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였고 나에게는 미세 근관치료학을 위해 적절한 기록장치와 영상재현장치를 더욱 더 면밀히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토론의 신선함을 주는 세션이 있었다. 미국의 왈튼교수, 캐나다의 토넬교수, 스웨덴의 베르겐홀츠교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타홀츠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근관치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재평가' 세션이다. 여기에서는 근관치료의 기법이나 생물학적인 고찰이 아닌 치료 결과에 대한 학자의 관점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였다. 19세기의 근관치료는 하나의 시행착오로서 환자가 증상이 없으면 성공으로 간주했었고 20세기 후반에 발표된 많은 논문들에서도 환자의 증상, 방사선상의 병소의 크기 변화 등으로 성공과 실패를 주로 판단한 것



▲ 예루살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의 필자.

과 비교하면 이번에 제기된 성공의 관점은 매우 주관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하고 있었다. 치료 전에 예측하였던 치료 후의 최상의 기대상황을 치료 후의 것과 비교하여 나름대로의 성공과 실패로 평가해 보는 방법은 임상근관치료 영역에서 환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치료계획서 참고하여 지향해야 될 부분으로 보였다.

회의 참가자들의 철저히 준비된 발표, 솔직하면서도 진지한 토론 그리고 풍부한 인간미들을 접하면서 2001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릴 제5차 세계대회를 앞 둔 한국의 근관치료학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 학회에서 토의된 내용 외에, 세계학회에 한국의 대표를 처음으로 파견하고 개인적으로는 국제학회에서 처음으로 좌장을 맡았다는 신선한 경험과 더불어, 개최지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다는 점으로 인해 특이한 세계학회를 참가했다는 느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근관치료학의 토론이 함께 어우러져 비행기 뒤로 남는다. ①7